

포스트모던 시대의 종교교육

이 재 일
(선문대학교)

〈요약〉

이 글은 포스트모더니즘이 지닌 종교적 차원과 다원주의적 특성에 관심을 갖고 종교간의 상호 이해와 삶의 탐구를 향한 종교교육을 논의한다. 오늘날의 인류는 근대 문명을 넘어 문명의 방향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것은 근대 문명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극복하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이 문명의 방향전환적 현상을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근대에 이루어진 종교와 교육의 분리가 오늘날의 사회에 도덕적 영적 위기를 가져왔다고 본다. 그래서 종교와 교육의 협력에 의해 우리 사회의 도덕적 영적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보고 그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했다. 종교와 교육의 협력은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곧 포스트모더니즘의 관점이기도 하다.

I. 서론

오늘의 인류는 근대를 넘어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전환기에 처해 있다. 전 근대를 벗어나 근대로 접어드는 인류에게 근대 문명은 환상적이었고 한동안 풍요로운 삶을 보장했었다. 그랬던 근대 문명이 여러 문제점에 봉착하면서 인류는 오늘날의 문명이 그 궤도를 수정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자각을 하게 되었다. 이것은 곧 근대 문명을 넘어서 새로운 문명으로의 방향전환을 모색하는 움직임이다.

이처럼 근대 이후를 바라보는 문명의 전환 운동을 한 마디로 포스트모더니즘이

라고 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20세기 후반에 유행하는 사조이다. 이것은 학문 분야나 삶의 영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그 개념을 규정하기가 간단하지 않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을 근거로 하여 생성된 개념이다. 모더니즘(modernism)에 포스트(post)라는 접두어가 결합되어 형성된 이 용어는 모더니즘 이후의 현상을 지칭한다. 이것은 “모더니즘의 논리적 발전이며 계승인 동시에 모더니즘에 대한 비판적 반작용이며 의식적 단절”로 파악된다(김옥동, 1990: 24). 이처럼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모더니즘은 19세기 말엽부터 20세기 전반기에 서구의 예술계에 나타났던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서 당시의 사회적 상황과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다양한 예술 현상을 말한다. 이 모더니즘은 고전주의적 특성을 지니면서도 낭만주의적 전통을 크게 이어받고 있다. 그 두드러진 특성은 전통과의 단절, 주관성과 개인주의의 중시, 예술의 심미성과 자기 목적성 강조, 실존주의적 세계관 등이다(김옥동, 1992: 59-80). 포스트모더니즘은 이러한 예술 분야에서의 모더니즘에 대한 반작용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논의는 이미 예술의 영역을 넘어 근대 세계 전체를 반성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의 포스트모더니즘 논의는 근대성이라는 뜻으로서의 모더니티(modernity)에 대한 반성과 관계된다.

모더니티는 역사적이고 철학적인 개념으로서 서구 역사를 고대, 중세, 근대로 나눌 때 16세기 르네상스로부터 시작되는 근대가 지니는 특성을 말하는 것이다. 서구에서 중세 사회는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천상 세계를 바라보며 성서를 지침으로 삼고 사는 신앙적 사회였다. 한편 근대는 이러한 중세적 삶과 세계관을 부정하면서 인간 해방의 가치를 들고 출발하여 종교개혁과 자연철학의 출현을 거쳐 근대적 자연과학을 형성하여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갔다. 근대인의 삶은 이성의 작용에 따라 사유하면서 경험을 중시하고 지상의 현세적 삶에서 만족을 찾는 것이었다.

근대 이전, 곧 중세는 전일적 우주관이 지배하던 시대였다. 당시는 천상 세계와 지상 세계를 분리하는 수직적인 형이상학적 이원론, 우주의 질서와 사물에 대한 유기체적 인식, 지식의 근원으로서의 전통 중시, 우주의 중심으로서의 인간과 지구 이해를 특징으로 한다. 반면에 근대는 자연과학적이고 기계론적인 세계관, 물질과

정신을 분리하는 수평적 이원론, 비판적 합리성을 특성으로 한다(세계신학연구원, 1990: 24-31).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과 모더니티에 대한 반성이다. 즉 앞에서 살펴본 예술 현상으로서의 모더니즘을 넘어 17세기 갈릴레오-뉴턴의 과학으로부터 발달된 세계관으로서의 모더니즘 그리고 이러한 세계관과 영향을 주고받던 세계 질서로서의 모더니티를 초월하려는 사조이다. 그리하여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이나 모더니티와 공통점을 가지면서도 차이점을 가진다.

오늘의 시대는 근대적 특성이 무너지고 있다. 궁극적 실재를 배제하고도 성립 가능한 자기완결적 우주 안에서 인간이 살고 있다는 신념이 무너지고, 이성의 기초 위에 도덕과 사회를 건립하려는 시도의 실패를 인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과학적 지식이 선하다는 견해를 포기하게 되었고, 근대의 과학과 이에 따른 교육에 의해 계속 진보한다는 인식에도 수정이 가해진 상황이다(세계신학연구원, 1990: 54-60). 다시 말하면 이성에 기초한 자연과학적 지식과 탐구 방법을 객관적인 진리와 보편적인 진리탐구방법이라고 보았던 근대적 사고방식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것은 상대성이론, 양자물리학, 불확정성원리와 같은 자연과학의 발전과 이 발전에 의한 철학적 반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 글은 포스트모더니즘이 지닌 종교적 차원과 다원주의적 특성에 관심을 둔다. 그리하여 종교다원주의의 시각에서 종교간의 상호 이해와 삶의 탐구를 향한 종교교육의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이나 종교다원주의적 종교교육이나 이제 태동하는 단계에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은 포스트모던 시대의 종교교육에 관한 탐색적 논의에 그칠 것이다.

II. 근대의 반성

1. 근대의 문제점

인류가 직면하는 근대의 문제점은 근대의 태생적 성격에 잠복되어 있던 문제이

다.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문예부흥 운동에서 시작된 근대는 합리주의와 과학주의를 낳았고 반종교적 세속주의로 나아갔다. 그리하여 근대는 데카르트적 사유에 기초한 인간관과 기계적 세계관, 자연을 지배하고 이용하려는 인간의 욕망, 과학철대주의적 사고방식, 무한한 진보와 발전을 향한 역사 이해와 이를 근거로 하는 낙관주의 등을 그 특징으로 한다. 근대의 태생적 성격에 기인하여 나타나는 오늘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 분리화와 파편화이다. 이것은 인간 삶의 다양한 영역이 각자 독립성을 가지고 분리된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는 정치, 예술, 철학, 교육 등이 종교로부터 분리되었다(Griffin, 1988: 9-10). 그리고 학문과 예술과 도덕이 서로 분리되었다. 이렇게 분리됨으로써 각 영역이 자유를 얻었지만 통전성을 상실했다. 학문은 진리적 가치만을 추구하고, 예술은 심미적 가치만을 추구하고 도덕은 선의 가치만을 추구하여, 서로 무관한 채 파편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둘째, 자원의 고갈과 생태계의 파괴로 나타나는 환경문제이다. 자연을 지배하고 이용하려는 근대 문명은 모든 사람이 풍요롭게 사는 소비사회를 이루었다. 그런데 인류는 이제 그 물질적 풍요의 대가로 전 지구적 자원의 고갈과 환경의 파괴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파멸로 몰아갈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낳게 되었다.

셋째,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이다. 국가주의나 민족주의는 국가나 민족의 구성원들이 자기들의 국가나 민족을 우선시 하는 사고로서 그 국가와 민족의 테두리 안에서 행복을 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는 제국주의적 패권주의로 나아가 국가나 민족 사이의 갈등을 빚었다. 그리고 국가간의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어 각 국가는 서로 그칠 줄 모르는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넷째, 개인주의이다. 개인주의는 개인이 본질적으로 타자로부터 독립되어 있다고 본다. 인간의 자아가 내적으로 다른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부정한다(Griffin, 1988: 3). 자신의 존재 근거와 정체성을 뚜렷한 자의식과 자율성에서 찾은 근대인은 어떠한 권위나 구속, 억압을 거부하고 자유와 해방을 추구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는 전통보다는 합리성을, 집단보다는 개인을 강조하여 공동체의 해체를 가져

왔고 소외의 문화를 창출했다.

다섯째, 물질주의 또는 경제주의이다. 이것은 대인관계보다 대물관계를 우선시하며, 인간 사이의 관계인 사회가 인간과 물질 사이의 관계인 경제에 종속되는 것이고, 도덕적 관점보다 경제적 관점이 앞서서 물질적 소유가 사회 생활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Griffin, 1988: 13). 오늘날의 사회는 물질주의가 반종교적 세속주의와 결합되어 저속한 향락소비사회가 되었다. 현대인은 삶의 의미나 가치를 추구하기보다 는 물질적 풍요 속에 즐기는 것에 열중하고 있다.

이러한 근대의 문제에 직면한 인류는 이를 넘어가려는 전환점에 서서 활로를 모색할 시점에 있다. 그러면 근대성을 어떻게 반성하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인류가 문화와 종교적 전통 속에 간직해 왔던 지혜를 발굴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2. 근대의 종교와 교육: 두 영역의 분리

앞 절에서 근대의 문제점으로 삶의 세 영역이 종교와 분리된 것을 지적하였다. 그 중에서 종교와 교육의 분리에 대해 좀 더 살펴보자. 서구의 중세는 군왕을 중심으로 한 세속적 권력과 교황을 정점에 둔 교회의 권위가 긴장 관계를 이루었다. 이러한 중세 이후의 시대인 근대는 왕권과 교권 사이의 관계를 새로운 방향에서 정립하게 되었다. 합리주의와 과학주의와 세속주의에 근거한 근대적 시각에서 종교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며 세속적인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세속적인 근대인들은 종교를 사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공적 삶의 현장에서 배제하였다. 그러한 현실은 20C 초에 정교분리로 법제화되었다. 정교분리는 국가가 비종교적이거나 종교적으로 중립을 지킨다는 정치원리로서, 오늘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로 인정된다

이렇듯 종교와 정치를 분리한 것은 정치적 지배로부터 종교를 보호하고 종교적 지배로부터 정치를 보호함에 있다. 그런데 과연 정교분리으로써 정치와 종교의 관계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정교의 분리 문제를 논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 아니므로, 이 문제를 종교와 교육의 영역에서 살펴보자. 정치와 종교의 분리는 교육의 차원에

서는 학교교육과 종교의 분리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교육을 국가가 주도하는 공교육 제도가 형성되면서 공립학교에서는 법적으로 학교교육의 중립성을 분명히 하였다.¹⁾

종교와 교육이 분리된 결과는 공립학교로부터 종교를 배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이 정교분리의 원칙을 적용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구미의 예를 보면, 정교분리의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하는 미국은 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을 허용하지 않으나 유럽에서는 이 원칙을 약하게 적용하여 국가 주도적으로 공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을 실시한다(정웅섭, 1991: 107). 한국의 경우에도 공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을 배제하고 있다. 그리하여 근대의 정신은 결국 사회와 공립학교로부터 종교를 추방하는 결과를 낳았고, 종교계 학교에서는 종교가 여러 교과목 중의 일부로 구획되어 교육적 담론에서 종교가 사라져 버렸다. 그 결과 오늘날의 세계에서 도덕적이고 영적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종교와 교육이 분리되고 학교교육에서 종교 교육이 억제되어 온 배경에는 위에서 논한 것 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였다. 그것은 종교 내에서의 분파, 교파 지도자들의 잘못된 행동, 그리고 교회에서 인종주의·성차별주의·군대주의·식민주의를 참아온 긴 역사, 도덕문제에 대한 갈등, 종교의 정치화, 종교를 미신으로 비하하고 물질적 무신론을 섬기는 과학적 경험주의와 환원주의, 예언자적 목소리에 대한 거부, 종교적 직관과 감성의 무시 등이다(Slattery, 1995: 72).

법률적으로 정치와 종교의 분리, 교육의 정치적 종교적 중립성이라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치와 종교 및 교육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고자 함이다. 교육이 종교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법률적 명시는 우리 교육이 종교를 도외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종교는 인류의 삶에 지대한 공헌을 해 왔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의 공적 생활에서

1) 미국의 교육법제가 종교와 관련된 사항에서 종교적 기준이 아니라 세속적 기준을 따르는 세속주의, 다양한 종교와 사상을 인정하는 복수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수립된 것도 정교분리의 원칙 하에서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다(안기성, 1978: 73). 한국의 교육법제도 정교분리를 명시하여, 교육법 제5조 1항에서는 교육이 정치적, 파당적, 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이 되는 것을 금지했고, 2항은 공립학교에서의 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금지하고 있다.

2) 우리 나라에서는 삼국시대 이래 조선시대에까지 불교와 유교가 한국인의 주류 종교가 되어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및 방법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불교와 유교는 우주와 인생에 대한 깊은 이치를 제시하고 고도의 윤리관을 확립하도록 이끌었다. 그리하여 불교와 유교는 우

그리고 학교교육에서 종교적 측면을 배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정치와 종교의 분리 그리고 종교와 교육의 분리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다. 종교의 목적은 교육이 추구하는 목적이기도 하다. 이것은 교육사상가들이 인격도야를 위하여 추구한 것이 곧 종교적 이상이었던 점에서 잘 드러난다. 종교는 교육에 이상을 보여줄 있고, 교육은 종교에 그 이상을 실현해 나아가는 과정과 방법을 구체화시켜 줄 수 있다. 종교와 교육은 서로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III. 포스트모더니즘과 종교다원주의

1. 포스트모더니즘

모더니즘과 모더니티를 넘어서고자 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은 어떠한 특징을 가질까? 포스트모더니즘은 무엇으로 규정되기를 거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포스트모더니즘은 불확정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적 사고와 이성적 언어에 의해 우주와 자연과 인간을 파악할 수 있고 객관적 지식과 보편적 진리를 제시할 수 있다는 근대의 전제에 대한 부정이다.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은 근대의 특징인 불변의 실재와 중심축을 부인하고, 탈중심성과 분산화, 다양성과 상대성을 존중한다.

근대는 중세의 종교적·전통적 억압으로부터 벗어난 시대이다. 그런데 근대에는 종교와 전통 대신에 과학이 군림하게 되었다. 그래서 종교와 문화는 자신의 진리와 가치를 과학언어로 증명해야 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근대의 과학 절대주의를 배격하고 어떠한 절대적이고 상위적인 담론을 거부한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성향은 다원주의로 귀결된다(한국기독교학회, 1996: 246-248). 다원주의란 특정한 것을 중심에 두고 다른 것을 주변에 두어 서열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양한 속성을 동등하게 인정하는 관점이다. 다원주의를 종교계에 적용하면 종교다원주의가 된

리 민족의 교육에서 그 목표를 분명히 설정할 수 있게 하였고 그 내용을 풍성케 하였으며 그 방법을 일정하게 세우도록 이끌었다.

다. 종교다원주의란 특정한 종교를 우월하다고 보았던 근대의 배타적 종교관을 부정하고, 모든 종교가 각기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긍정하는 종교관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또한, 내적 관계의 중시와 유기체주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관심, 자연주의적 범재신론 등의 특징을 가진다(Griffin, 1988: 14-17). 포스트모던 시대는 내적 관계의 실재를 강조한다. 즉 타인이나 사물의 관계를 본질적이며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람들은 다른 생명체와의 상호 유기적 관계를 의식하고 자연과의 일치 의식을 가지며, 생태학적 관심과 인간의 복지 문제를 연결시킨다. 이로써 포스트모더니즘은 근대의 기계적 세계관과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하려 한다. 또한 시간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여, 과거와 미래에 대한 관심과 존중을 회복했다. 바로 이 순간의 경험은 전 과거에 쌓여 있는 것으로 그리고 미래에 연결되는 것으로 여긴다. 그리고 자연주의적 범재신론(naturalistic panentheism)이라는 비전, 즉 세상은 신에 현존하고 신은 세상에 현존한다는 관점을 가진다. 그래서 세상은 신이나 삼라만상의 일방적 작용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과 삼라만상의 공동 작업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본다.

유기체적 세계관을 가지는 포스트모더니즘은 사회에 대해서는 공동체적 관점에 선다. 그래서 포스트모던 사회정책은 다양한 형태의 지역 공동체를 보전하고 재창조할 것을 강조한다. 현재의 경제 질서를 반대하여 민족-국가의 중요성을 크게 평가하지 않는다. 평등에 관심을 두고, 종교가 평등의 구현에 큰 몫을 담당할 것으로 본다(Griffin, 1988: 18-19). 그리고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상은 종교적 가치를 중시하여 공공 생활이 종교적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 즉, 도덕성은 독립적일 수 있다는 근대적 전제를 거부하고, 도덕성은 궁극적으로 종교적 비전에 근거한다고 확신한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은 이 사회의 성장 지향적 사고, 기계화된 생활 방식, 물질주의적 자본주의를 거부한다.

이러한 특성을 지니는 포스트모더니즘은 근대성의 문제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근대성의 덕목인 자유, 평등, 공동체 등을 계승하려 한다. 근대사회에서 공동체는 자유와 진보 양자에게 반대되는 것으로 보여져 왔기 때문에 점차 파괴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자유와 평등 및 공동체를 서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참된 공동체에는 자유와 평등이 있어야 하고, 참된 자유는 공동체와 평등이 따를 때 가

능하다고 보는 것이다(Griffin, 1988: 22-23).

2. 종교다원주의

오늘의 사회는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다종교적 양상을 띤다. 다종교의 사회에서 특정 종교의 타종교에 대한 태도는 대체로 배타주의, 포용주의, 다원주의의 3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Race, 1982: 10-105). 이 세 가지 유형은 기독교를 중심으로 구분된 태도이지만 타종교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첫째 유형은 배타주의이다. 이 태도는 자기 종교만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것이며, 타종교는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종교간의 대화는 무의미하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종교제도에 들어와야 하고, 그때 그들은 구제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종교만을 고수함으로써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는 현실 세계로부터 고립되고 있다. 인류 문화에 의한 역사적 상대성의 경험과 타종교에 대한 폭넓은 지식은 이러한 사람들의 입지를 흔들어 놓는다.

둘째 유형은 포용주의이다. 포용주의자들은 타종교를 고려하는 가운데 그들의 타종교에 대한 태도를 가지게 된다. 그들은 자기 종교는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것이고, 타종교는 자기 종교와의 관련 속에서만 가치가 있다. 타종교인은 결국 자기 종교에게로 돌아와야 한다. 포용주의에서는 종교간의 대화란 그것이 타종교인을 자기 종교로 인도하고 통합한다는 면에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닌다. 포용주의자들이 타종교와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는 환경에 관심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타종교인을 자기 종교로 끌어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범주 밖에 있는 타종교인과의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할 수 없다.

세째 유형은 다원주의이다. 다원주의자들은 세계 종교의 정당성을 믿고 있다. 그들은 제종교의 공존을 심각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각 종교의 독특성을 보존하면서 더 개방적이고도 진정한 종교간의 대화를 허용할 수 있는 태도를 탐구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의 개발은 자기 종교의 보편적 중요성을 수정하고 재확인하는데 이바지한다. 다원주의자들은 각 종교는 인간이 인간답게 되는 서로 다른 길들인데 어느 길도 타종교의 길에 비해 우월하거나 적대적이지 않다고 본다. 자기

종교뿐만 아니라 타종교에도 신성한 가치가 있다. 각 종교는 구원의 힘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종교간의 대화는 이를 통해 서로의 성장과 변혁을 이룰 수 있으므로 가치 있고 필요한 것이라고 본다.

오늘의 종교 세계에서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가장 대표적인 상황은 무엇보다도 다종교적 상황이다. 이 사회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세계의 주요 종교가 공존하는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 바로 이웃이 나와는 다른 종교를 신봉하고 가정에서 식구간에도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수많은 인류가 나와는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고 궁극적 실재에 대한 이해를 나와 달리한다. 그렇다고 하여 그들의 삶이 나보다 저급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인격적 삶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지성적으로나 양심적으로 종교다원성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현대사회를 종교적 다원사회라고 한다.

오늘날과 같은 다원사회에서는 여러 종교가 동일한 곳에 존재하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종교의 독단성과 편협성은 인류의 평화실현에 결정적 장애가 될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편협한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의 종교는 옳고 너의 종교는 그르다. 나는 정통이고 너는 이단이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 오늘의 상황은 인류가 필연적으로 종교에 대한 다원주의적 태도를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은 종교간의 대화를 통한 이해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때이다. 나아가 서로 배치되는 견해가 부딪히는 오늘의 현실은 기존의 종교제도가 새로운 종교제도로 나타나 종교의 초월적 측면을 살려 나아갈 수 있기를 요구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종교들은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서로의 지혜를 배우는 겸손한 종교이어야 할 것이다. 이제 종교도 구각을 벗고 인류를 초월적 지혜로 안내하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 새롭게 태어나야 할 때이다.

현실이 다종교사회인데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신앙인들은 자신들의 종교만이 적합한 것으로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남의 종교는 자기에겐 친숙한 것이 아니고 이상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타종교를 비판한다. 그러나 이것은 성숙한 종교인의 신앙심에서 나온 자세가 아니라 타종교에 대한 미흡한 이해나 오해에서 나오는 태도이다.

다원주의는 다양한 종교적 정당성을 인정하고 종교들의 공존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종교적 다원사회에서 적합한 태도이다.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가 현대사회에서 적합한 정치 이념이듯이, 각 종교의 다양성과 정당성을 존중하는 다원주의는 종교적으로 다원화된 세계에서 최적의 태도일 것이다.

3. 포스트모던 시대의 종교

인간의 이성적 능력을 크게 신뢰하며 출발한 근대사회는 과학을 발전시켜 왔고, 그 결과 과학을 중시하는 과학주의에 기반을 둔 반종교적 세속주의를 낳았다. 그리고 인본주의와 물질주의를 중심한 삶의 형태를 이루어 왔다. 이러한 삶의 형태를 영위하는 근대인은 신화와 종교를 무시한다. 근대사회에서 신화란 다분히 허황된 것이고 종교란 비합리적인 것을 말하는 세계였다. 신화와 종교를 배척하는 근대사회는 그 신화와 종교가 제시하는 초월적 가치가 사라져버린 삭막한 세계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회에서 사는 근대인은 정신적으로 메마르고 무기력해지기 쉽다.

그러나 인류가 근대에 진입하여 근대적 삶의 형태를 창조하고 근대적 가치를 누리면서 인류는 종교적인 면에서도 귀중한 권리를 획득하였다. 그것은 바로 인권에 대한 존중 속에 신앙의 자유를 확보한 것이다. 전근대사회에서 인류는 자유를 억압당해 왔고 신앙의 자유 또한 제한 당해 왔었다. 그러나 현대인은 근대주의가 가져다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자신이 선택한 종교를 통해 가치 있는 삶을 개척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나아가 새로운 신앙, 새로운 종교의 세계를 탐구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근대를 넘어가는 오늘의 인류는 이제 새로운 삶의 형태를 탐색하는 관문에 들어섰다. 인간의 삶에 대한 총체적 반성을 요구받는 오늘의 상황은 특히 종교적으로 더욱 그러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들어서면서 인류는 종교와 종교를 기반으로 했던 인류의 문화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시도해야 할 때를 맞이했다.

종교란 인간이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고 초월적 가치를 탐구하도록 이끄는 방편이다. 그것은 현실의 상대적 가치를 뛰어넘으려 한다. 심지어 각 종교 전통들은 그 자체조차 넘어서면서 초월적 세계를 지향한다(길희성, 1994: 25, 27). 그런데 진리를

파악하는 인간의 능력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제약을 받는다. 진리를 매개하는 언어가 상대적이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인간 자체가 자신이 처한 문화, 언어, 역사, 환경의 제약을 받는 유한한 존재이다. 인간이 종교를 통하여 다가가고자 하는 궁극적 실재를 파악하는 것도 시공의 제약을 받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다.

역사상에서 특정한 지역에는 특정한 종교가 있었다. 특정한 지역에서의 특정한 종교는 자기가 우월한 종교인 것을 강조하여 결과적으로는 타종교를 배타시 했다. 그리하여 근대사회에서는 종교가 이중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종교는 한편으로는 사랑과 정의, 평화를 주장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타종교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일으켰다. 그것은 각각의 종교가 자기만이 진리를 소유했고 궁극적 실재를 붙들고 있으므로 자기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데서 연유된 것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종교는 서로간에 적대감을 형성하고 분쟁과 분열을 조장하는 배후 세력이 되어 오기도 했다.

종교간의 갈등에는 기존의 신학도 한 몫을 해 왔다. 역사적으로 신학은 기독교에서 신앙과 교리 및 전통에 관한 연구로서 기독교라는 종교의 가치를 드러내는 학문이었다. 즉 신학은 교회를 위한 학문이었다. 신학이 역사적으로는 기독교의 학문이었을지라도 이제 신학은 기독교만의 것으로 볼 수 없다. 종교세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초월적 존재인 신이나 궁극적 실재를 믿고 있다. 그리고 각 종교에서는 그 나름의 학문을 통하여 그 종교의 의미와 가치를 드러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세계의 종교들은 그들의 신앙 대상과 전통, 교리를 연구하여 자체의 존재 의미를 드러내고 그 종교의 진리적 측면을 세상에 변증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신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느 종교에나 자체 학문인 신학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길희성, 1994: 48-49).

그러면 신학과 종교학을 비교하여 보자. 신학은 특정 종교의 신앙적 관점에서 그 종교를 연구하고 해석하는 작업이다. 종교학은 세계의 모든 종교를 대상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그들을 파악하고자 한다.³⁾ 신학은 특정한 종교를 신

3) 종교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종교학의 성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그것은 종교가 삶의 모든 부분에 관여한다는 점, 종교란 주관적이라는 점, 종교학자가 객관적일 수 없다는 점 등이다. 이에 대해 종교학은 종교를 살아있는 역사적 존재로서 학문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뤄 독자적이고 객관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이은봉, 33-34, 38; 황필호, 1989: 295-301).

봉하는 사람이 그 신앙을 전제로 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신학을 규범적 학문이라고 한다. 신학은 그 연구 대상에 대해 자기 종교의 시각에서 다분히 변증적 작업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신학은 특정한 종교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하여 그 종교가 지닌 진리를 당시에 알맞게 드러내는 학문이다. 그런데 특정한 종교의 신앙과 교리는 타종교에게는 독단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신학이 전제로 하는 자기 종교의 시각이란 타종교에게는 독단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신학이 신앙을 전제로 하여 자기 종교를 연구하는 학문이므로, 신학은 그 기반이 되는 독단적 전제를 벗어날 수 없다.

종교학은 학문적 객관성과 공정성을 견지하는 가운데 세계의 여러 종교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러므로 종교학은 어떠한 신앙적 전제도 거부한다. 그렇다고 하여 종교학이 종교의 초월적 측면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에 산재한 종교들의 다양한 전통들을 “공정하면서도 공감적으로, 지성적이면서도 애정을 갖고 이해하고자”(길회성, 1994: 51) 한다. 종교학은 신학처럼 특정 종교의 의미와 가치를 존중한다. 그러나 신학과는 달리 그러한 의미와 가치가 다른 종교의 의미와 가치를 배척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신학은 신이나 궁극적 실재의 초월성을 말한다. 초월적 신은 인간의 언어에 제한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상징은 그 자체를 넘어 그 이상의 것을 지시한다. 궁극적 실재는 어느 특정 종교나 교리에 간헐 수 없는 초월자이고 자비와 사랑의 존재이다. 태양이 삼라만상에 끌고루 그 빛을 비추듯이 신은 그의 자비와 사랑을 세상 모든 존재에게 끌고루 베푸는 존재이다. 초월적 존재의 은총은 어느 특정 종교나 교리에 제한 받지 않는다. 종교학이 성립되기 이전까지는 종교계에서의 학문이란 특정한 종교를 옹호하고 그 가치를 드러내는 신학적 작업만이 존재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신학적 작업은 다원사회에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신학은 신의 초월적 측면과 성스러움을 추구하는 학문으로 변모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종교학적 관점에서 종교를 볼 필요가 있다. 다양한 종교 전통들을 지성적이면서도 애정을 가지고 이해하려는 종교학은 한 종교에서 발견했던 귀한 가치들이 다른 종교에도 있고, 자기 종교가 가르쳐 주던 인격적 이상이 타종교를 통해서도 발견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리하여 ‘이 종교는 나에게 절대적 가치가

있고, 저 종교는 너에게 절대적 가치가 있다'는 다원주의적 관점에 선다. 즉 종교학은 각 종교가 '상대적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IV. 포스트모던 종교교육: 상호이해, 삶의 탐구 및 초월의 길

1. 기본 입장

불확정성, 상대성, 다양성, 다원성 등의 특징을 가지는 포스트모더니즘은 가치나 지식을 다루는 교육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교육이란 더 나은 가치와 문화를 가르쳐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게 그리고 더 가치 있게 이끄는 행위이다. 그런데 포스트모더니즘은 가치의 상대성을 전제하고 다양한 가치를 인정한다. 그렇다면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교육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포스트모더니즘은 교육의 근거가 되는 보편 타당한 가치의 기준이나 진리를 거부한다. 그러면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교육은 가치 부재의 교육이 되어야 하는가? 그렇다면 그러한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니면 가치의 기준과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이 있는가? 그래서 가치 지향적인 교육 행위를 계속해 나아갈 수 있는가? 과연 어떻게 그런 교육이 가능한가? 이에 대한 교육계의 전례는 다음과 같다.

학생을 가르치는 일은 과연 어떠한 성격을 띠게 될 것인가? 지식의 상대성과 다원성을 전제로 하는 교육의 방향은 처방적 교육 형태로부터 다의적 해석 위주의 형태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교과 내용을 주어진 절대적인 의미로 보기보다는 그것의 기의(記意)적 성격을 인정하는 방향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교사는 그러한 교과를 가지고 자기반영적 교수의 형태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교과 내용이 완결된 옳은 해석을 담고 있다는 폐쇄적 생산품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 개개인이 공동 창작의 형태로 참여하여 각기 자신의 경험과 주관에 의해 비판할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미를 각기 생산해 나가는 열린 교과서로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유혜령, 1991: 192-195).

이처럼 포스트모던 교육은 열린교육을 제안한다. 주어진 교과 내용이 절대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것의 전달을 주업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가 교과를 매개로 하여 어울려져서 삶을 탐구하고 의미를 창조해 가는 교육을 지향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인간 삶에서 종교적 가치가 중요함을 인정한다. 종교와 교육은 우리 시대의 지적 성격을 파악하는 데에서 중심일 수 있다. 우리 시대의 영성적 도덕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교적 상황의 진단과 종교적 문제의 해결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영성적 도덕적 위기의 근원은 삶의 제 영역에서, 특히 공립학교의 교육에서, 종교를 배제함으로써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종교와 교육은 분리될 수 없으며 교육에서 종교교육은 핵심적인 위치에 있어야 한다. 학교는 다원주의적 시각에서 종교와 종교교육을 다루어야 한다.

이처럼 포스트모더니즘은 오늘의 학교교육이 영성과 종교를 포용할 것을 제안한다. 새로운 시대를 추구하는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공적 생활이 종교적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 학교에서 교사가 인생의 스승이 되어 교육의 전 과정이 삶의 궁극적 의미에 대한 안목을 지향하도록 해야 하며 교육에 성스러움을 융합해야 한다. 또한 교사 교육의 과정에 도덕과 가치에 대한 통찰력이 포함되어야 하고, 교육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되려고 희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야 한다. 포스트모더니즘 교육은 학생이 인격적이고 영적인 변화를 이루도록 안내해야 한다(Slattry, 1995: 73). 포스트모더니즘은 교육에서 영원성의 신비를 지니고 초월의 힘을 가진 종교적 가치가 되살려질 것을 기대한다.

교육이 종교를 배제하지 않고 수용할 때, 그 교육은 종교교육이라 할 수 있다. 포스트모던 종교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다원주의적이라는 것에 있다.⁴⁾ 다원주의적 종교교육은 형성되는 과정에 있다. 이 교육적 접근은 종교 교육자가 종교를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도구로 다룰 때 시작된다. 종교가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과정이 될 때, 이 교육적 접근은 각자를 더 나은 신앙적 실천과 더 깊은 타종교 이해로 안내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종교와 교육의 의미를 종합함으로써 종교교육을 풍성하

4) 포스트 모더니즘과 다원주의의 관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필자는 이 글에서 양자가 상통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게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이것은 교육적이고 종교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종교간의 그리고 종교 내의 대화의 상호작용을 활용한다(Scott, 1984: 333-334). 이것은 타종교 전통을 이해하기 위해 자기 종교의 독선적인 주장을 포기하고 초종파적 전망을 추구한다. 종교적 다원주의는 우리에게 우리의 종교를 발전시키도록 그리고 더 종교적으로 살도록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축복 받은 종교적 다원주의”로부터 이 교육 형태는 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Lee, 1988: Ch. 3).

종교교육은 두 가지 범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어느 특정한 방식으로 종교적이 되도록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둘째는 종교의 학문적 교수 또는 종교에 관한 교수이다(Moran, 1989: 85). 전자는 종교적이 되도록 종교로부터 가르치는 것인데, 타종교에 대한 배타주의자나 포용주의자가 택하는 교육 방식이다. 이러한 교육은 가정이나 특정 종교에서 일어날 수 있다. 후자는 종교에 관하여 학문적으로 가르치는 것인데, 종교적 다원주의자가 택하는 교육 방식이다. 이것은 공립학교에서 실시하기 적절한 형태이다. 종교를 학문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종교에 관하여 가르치는 것이고 여러 종교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식이 공립학교에 적절한 포스트모던 종교교육이 된다.

2. 교사와 교육과정

포스트모던 종교교육의 교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다원주의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공감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스마트(Smart, 1969: 97-98)에 의하면 교사가 “신앙을 공감적으로 그러나 그 신앙에 대한 대안들에도 존중을 포함으로써 공개적으로 묘사하는 것과 그 신앙에 대한 대안에 대해 침묵하거나 편파적으로 대하면서 그 신앙이 옳다고 가르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전자는 종교에 대한 이해를 표현하는 방식이고 후자는 전도나 전법의 방식이다. 다원주의적 종교교육을 위해서 교사는 종교 세계의 어떤 관점도 편견 없이 공정하게 그리고 공감적으로 묘사해야 한다. 그래야 종교에 관해 배우는 학생은 자기 신앙체계와 타 신앙체계에 대해 좀더 민감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포스트모던 시대의 학문적인

종교교육이다.

포스트모던 종교교육과정은 근대의 지식전수적 그리고 정보전달적 교육과정을 탈피하여 학생 각자 가 살아온 경험에 대한 재해석을 지향한다. 그래서 학습자가 “자신의 자서전을 재개념화하는 능력을 강조하고, 타인과의 관련을 인식하며, 과거를 회복하여 재구성하며, 미래의 가능성을 상상하고 창조하며, 더 큰 개인적 공동적 의식에 다가선다”(Slattery, 1995: 77). 곧 교육을 삶의 탐구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근대교육에서 텍스트는 학습자가 그 내용을 기억하고 시험에서 재생해야하는 언어적 기록물이었다. 그러나 포스트모던 교육에서 텍스트는 기록자 또는 기록된 내용과 학습자의 현상학적 만남이 이루어져 학습자가 자기 삶을 반추하는 현장이 된다. 그리하여 커리큘럼은 지혜를 만나고 삶의 의미를 성찰하는 매체가 된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이 모형은 인간 삶이 다차원적임을 인식하고 그러한 모든 차원과 관련하여 교육과정을 이해하고자 한다. 즉 역사, 종교, 철학, 문학, 예술, 그리고 정치, 성, 인종 등과 관련하여 교육과정을 이해하고자 한다. 둘째, 교육과정 자체(교육경험)에 대한 질적 이해에 관심이 크다. 그리고 과거의 가치중립적 입장에 서기보다 가치지향적이다. 그렇다고 하여 교사가 특정 가치관을 학생에게 요구하는 것을 아니다. 학생이 교육과정을 통해 스스로 가치관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경쟁보다 공동체적 협동을 강조한다. 교사는 세상을 경쟁적, 기계적, 물질적 관점에서 보는 것에 도전하고 학교에서 지혜의 탐구, 민주적이고 경건하고 공정한 생활에의 참여를 추구한다. 넷째, 기존의 교육과정에 대한 개념체계를 거부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라본다.

V. 결 론

근대를 넘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포스트모더니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자세를 요구한다. 종교와 교육이 분리되는 길을 걸어왔던 근대를 반성하는 현대인은 포스트모더니즘과 다원주의에서 크게 시사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 오늘의 시대에 다원주의적 종교교육은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와 타인의 종교를 더 깊이 이해

하도록 이끌어 갈 책임이 있다. 다원주의적 종교교육은 종교적으로 다원화된 세계에서의 종교교육으로서 바람직한 형태이다. 이것은 다원주의적 종교교육이 타종교를 이해하게 하고 그리하여 결과적으로는 각자의 삶에 깊은 통찰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다원주의적 종교교육은 다종교사회의 학교교육에서도 실시될 수 있다. 이것이 학교가 종교적 가치를 반영할 때 학교교육의 본질이 되살아난다고 여기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종교와 교육에 대한 관점이기도 하다.

〈참 고 문 헌〉

- 길희성(1994). *포스트모던 사회와 열린 종교*. 서울: 민음사.
- 김옥동(1992).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현암사.
- _____ 편저(1990).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 서울: 문학과 지성사.
- 세계신학연구원 역(1990). *포스트모던 신학*. 서울: 조명문화사.
- 안기성(1978). 미국의 공교육제도와 종교에 관한 일고찰. *사대논집*, 3.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1978.
- _____ (1987). *교육법제상의 정교분리*. 국제크리스찬교수협의회 편, *학문과 종교*. 서울: 주류.
- 유혜령(1991). *포스트모더니즘과 교육*. *정신문화연구*, 제14권 제2호(통권 43호).
- 정웅섭(1991). *현대기독교교육의 과제와 방법*.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한국기독교학회(1996). *포스트모더니즘과 탈식민주의시대의 신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 황필호 역편(1989). *종교철학개론*. 서울: 종로서적.
- Race, A.(1982). *Christians and religious pluralism*. New York: Orbis Books.
- Griffin, D. R. ed.(1988). *Spirituality and society*.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Moran, G.(1981). *Interplay: A theory of religion and education*. Winona: Saint Mary's Press.

- _____. (1989) *Religious education as a second language*. Birmingham: Religious Education Press.
- Lee, J. M. (1988). *The blessings of religious education*. Thompson, N. H. (ed.), *Religious Pluralism and Religious Education*. Alabama: Religious Education Press.
- art, N. (1969). *Secular education and the logic of religion*. New York: Humanities Press.
- Slattery, P. (1995). *Curriculum development in the postmodern era*. New York: Gland Publishing, Inc.
- Scott, Kieran. (1984). Three traditions of religious education. *Religious Education, Vol. 79. No. 3.*